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early adolescents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 신재은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 : Shinn, Jae Eun

〈목 차〉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s,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were examined with a sample of 426 second-grade junior high school students(210 boys and 216 girls). Data were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regarding friendship(number of friends and presence of a best friend),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The number of friend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peer aggression both in boys and girls indicating that the more friends they had, the less peer aggression they showed. Peer aggression didn't vary as a function of the presence of a best friend.

The number of friends was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victimization both in boys and girls. The more friends they had, the less victimization they experienced. Victimization varied as a function of the presence of a best friend only in adolescent boys, in which those having a best friend were rated by peers to experience less victimization.

Victimization was related to peer aggression both in boys and girls. The more victimization they experienced, the more peer aggression they show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공격성(peer aggression), 즉 교내 외에서 강한 아동이 약한 아동에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해를 가하는 행동(Hodges, Malone, & Perry, 1997)은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발달과 관련시켜 활발히 연구해 온 주제이다.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또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충동적이며, 타인에 대한 지배욕이 강하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의 정도는 낮으며,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다(Olweus, 1978, 1991). 반면에 또래공격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victimization by peers)(Olweus, 1991)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 특성이나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응 측면, 부모의 양육 행동과 관련시켜 살펴본 몇몇 연구들(도현심, 최미경, 1998; 양원경, 도현심, 1998; 이숙, 이춘아, 1998)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국외 연구들에 의하면 8-16세 중 약 9-10%가 학교 동료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놀림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4; Perry, Kusel, & Perry, 1988). 또래로부터 경험하는 이러한 언어적, 신체적 괴롭힘의 경험은 불안, 우울, 외로움, 낮은 자존감(Boivin & Hymel, 1997; Egan & Perry, 1998), 학교 회피와 낮은 학업 성취(Olweus, 1978), 또래 거부, 적은 친구수(Hodges et al., 1997) 등의 여러 부정적 적응 경험과 관련된다.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또래관계를 통해 접근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이르러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우정관계는 특별한 두 친구 사이의 상호 선택을 요구하며, 더 친밀하고 격렬한 감정이 개입되는 보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관계이다. 우정관계는 인거나 사회적 수용을 얻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없는 양자 관계(dyadic relationship)로서 더 넓은 맥락의 또래관계 집단에서와는 달리 청소년의 발달에 기여한다. 또한 우정관계를 공유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대인관계를 조정하는 그들

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쾌하고 보상적인 경험이므로 우정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와 바램은 인간의 기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정관계 형성에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종종 개인적 충족감을 제한하는 인성 문제(personality disorder)로 고통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정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취이자 대인관계 기술의 척도이며 적응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Kimmel & Weiner, 1985). 적응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아동은 그들의 또래보다 친구 수도 적고, 우정관계가 덜 안정적임을 보고했으며(Hartup & Sancilio, 1986), 이와 반대로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우정관계가 결여된 경우에 비해 자존감도 높았고, 학교 생활도 더 잘 했으며, 정서적인 문제는 더 적었다(Berndt, 1992). 또한 실제로 몇몇 연구들에서 또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아동들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고 인기가 낮으며(Cassidy & Asher, 1992), 또래괴롭힘의 피해자들 역시 우정관계, 협동성, 친사회적 기술, 유머감각 등의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된다(Olweus, 1991). 그리하여 청소년 개인의 위험 요인과 더불어 대인적 관계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야기하는 위험 요인으로서 연구되고 있으며, 또래관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청소년기 우정관계는 그 중요성으로 인해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적응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우정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급 내에서 인기가 많으며, 친구의 수도 많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사회적 기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을 알 수 있다(Hartup & Sancilio, 1986). 이렇게 우정관계가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우정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인 가해적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공격을 당하는 피해자적 행동과 같이 부적응 행동을 보이리라 예측된다. 최근 우정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우정관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친구수 혹은 가장 친한 친구 유무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있으며, 우정관계의 하위 차원으로서의 이 두 개념의 개별적인

기능이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정관계를 동성 친구수와 가장 친한 친구 유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Rys & Bear, 1997).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협조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Cassidy & Asher, 1992), 덜 공격적이었다는 결과(Pettit, Dodge, & Brown, 1988; Wu, 1992)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부적인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최근의 여러 연구들(Bukowski & Hoza, 1989; Parker & Asher, 1987)은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비공격적인 청소년의 경우보다 인기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이 두 집단의 상호적인 친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공격적 행동 성향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우정관계간의 관련성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우정관계의 중요한 발달적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 기능은 보호적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에서처럼 다른 아동으로부터의 공격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해를 입히려는 외적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Lewis & Feiring, 1989).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여러 연구들(Bukowski, Sippola, & Boivin, 1995; Rizzo, 1989)을 통해 실제로 우정관계의 보호적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Bukowski와 동료들(1995), Malone과 Perry(1995)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가 없는 아동은 친구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보고된다. 또한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의 수가 증재역할을 함이 밝혀졌다(Hodges et al., 1997). 즉, 아동의 내재적 문제, 외현적 문제, 신체적 허약성과 같은 행동적 위험은 친구수가 적고, 친구가 보호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밀접한 관련을 보임을 보고하였다(Hodges

et al., 1997). 이는 지지적인 친구는 아동을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며, 이것은 우정관계를 통해 갈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위협을 처리하는 데 대한 충고를 얻을 수 있으며, 공격적 아동의 측면에서는 지지적인 친구가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친구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며, 반면에 친구와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은 홀로 있을 때가 드물기 때문에 공격의 목표로서 덜 유용하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구의 행동적 특성이 행동적 위험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증대한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즉, 친구가 효과적으로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만한 특성 즉, 친구 역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허약한 경우, 친구가 보호와 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비해 행동적 위험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련성은 매우 컸다. 따라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피해 아동은 지지적이고 보호적인 친구가 없는 아동에 대한 공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Hodges et al., 1997). 이로써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밀접한 관련성과 함께 우정관계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라는 위험 상황에서 방어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피해아들의 반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Egan & Perry, 1998). 즉, 다른 아동의 괴롭힘에 대해 불안을 보이며, 쉽게 울고, 공격 아동에게 복종을 하는 내재적 행동(internalizing behavior)을 나타내는 유형과 파괴적 행동, 비효과적인 공격적 행동, 논쟁 등을 나타내며 외현적 행동(externalizing behavior)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이와 같이 피해아 중 공격에 대해 자신도 공격적인 행동으로 맞서는 유형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때,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또래공격성간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도현심, 최미경(1998)의 연구에서 양자간의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측정은 그 동안 또래보고와 자기보고에 의해 이루어졌다(Perry et al., 1988). 또래보고의 경우, 또래들은 가장 심각한 공격이 발생하는 환경에 존재하므로 누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며, 누가 괴롭힘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개별 아동의 편견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키고 측정의 통계적 신뢰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이점이 있다. 반면, Olweus(1991)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 모욕, 사회적 고립 등을 직접 경험하는 학생 본인만이 자신에 대한 또래들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적절한 평가도구로서 자기보고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측정을 위해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를 이용하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정관계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평가된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함께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또래공격성간의 관계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우정관계는 또래공격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우정관계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또래공격성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K시에 위치한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426명의 남녀 학생들(남: 210명, 여: 216명)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또래로부

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의 수는 학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괴롭힘을 더 당하며(Olweus, 1991),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한다고 느끼는 연령은 초등학교 후기와 중등학교 시기인 10-14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Hoover, Oliver, & Hazler, 1992).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여중생과 초등학생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가장 많이 당하고 있음이 보도된 바 있다(조선일보 1999, 1, 5: 25면). 따라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 관한 기존 국외 및 국내 연구 결과와 보도를 바탕으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우정관계 척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자기보고, 또래보고)로 구성된다.

1) 우정관계 척도

Ladd와 동료들(1997)에 기초하여 친구의 수와 가장 친한 친구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연구대상에게 친한 동성 급우들의 이름을 세 명까지 적도록 한 후, 이들 중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하도록 했다. 친구의 수는 청소년들이 서로 친한 친구로 적은 경우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청소년은 0-3명의 친구를 갖게 된다. 가장 친한 친구의 유무 역시 상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시한 경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장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

본 연구에서는 Perry와 동료들(1988)이 사용한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iggins와 Winder(1961)가 개발한 Peer Nomination Inventory(PNI)를 토대로 수정된 것이다.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각각 7문항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에 의해 측정된다.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 및 또

래에 의한 괴롭힘은 각 문항에 대해 스스로의 또래 경험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Likert식 4점 척도('거의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이다. 전체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들을 제외시키면서 Cronbach's α 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각각에서 한 문항씩이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문항수는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각각에서 6문항씩이었으며,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 점수는 각각 6-24점에 이르게 된다.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Cronbach's α 는 각각 .76과 .86 이었다.

또래보고용은 각 문항에 대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같은 반 동성 급우의 이름 아래 표시(V)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래보고에 의한 각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점수는 각 문항에 대해 표시한 또래수의 백분율을 계산한 후 각 문항의 백분율을 합하여 산출하며, 각각 0-700 점에 이르게 된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에 대해 또래공격성 7문항 중 어느 두 문항에 25명의 급우들 중 각각 5명과 3명이 표시를 한 경우 A의 또래공격성 점수는 32점($5/25 \times 100 + 3/25 \times 100 = 32$)이 된다.

자기보고와 또래보고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 모두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래공격성의 경우,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r = .31(p < .01)$, $r = .19(p < .01)$ 이었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r = .30(p < .01)$, $r = .36(p < .01)$ 이었다.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먼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훈련된 9명의 조사원들이 각 교실에 들어가 9학급에 총 461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실시된 모든 질문지는 그 자리에서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461부의 질문지 가운데 자기보고용과 또래보고용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미비된 경우(35부)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426부를 연구문제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t 검증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예비분석

연구문제의 분석에 앞서 먼저 본 연구의 관련 변인들이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 및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정관계는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친구수는 남학생이 1.25명, 여학생이 1.48명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다($t = -2.33$, $p < .05$). <표 1>에서와 같이 가장 친한 친구 유무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남학생은 26.2%, 여학생은 45.4%로 나타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역시 여학생이 더 많았다($\chi^2 = 11.84$, $p < .01$).

<표 1> 성에 따른 가장 친한 친구 유무의 차이

(단위: 명)

	가장 친한 친구 유무		전체(%)
	有(%)	無(%)	
남학생	33(26.2)	93(73.8)	126(47.2)
여학생	64(45.4)	77(54.6)	141(52.8)
전체	97(36.3)	170(63.7)	267(100.0)

$$\chi^2 = 11.84, df = 2, p < .01$$

또래공격성에 있어서는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자기보고: $t = 4.11$, $p < .001$; 또래보고: $t = 3.72$, $p < .001$), 또

래에 의한 괴롭힘에 있어서도 역시 자기보고와 또래 보고 모두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였다(자기보고: $t=5.76$, $p<.01$; 또래보고: $t=3.20$, $p<.01$) (<표 2> 참고).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녀학생 모두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2> 성에 따른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

	남(N=210)		여(N=216)		t
	M	SD	M	SD	
<u>또래공격성</u>					
자기보고	2.01	.48	1.83	.44	4.11***
또래보고	38.4	55.2	22.0	32.7	3.72***
<u>또래에 의한 괴롭힘</u>					
자기보고	1.82	.53	1.54	.48	5.76**
또래보고	41.5	69.2	21.1	62.0	3.20**

** $p < .01$ *** $p < .001$

종합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또래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행하고,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친구수가 더 많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 역시 더 많았다.

2.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1)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관계

남녀학생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로 구분하여 친구수와 또래공격성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수는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해 보고된 또래공격성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으며(자기보고: $r=-.14$, $p<.05$, 또래보고: $r=-.19$, $p<.01$),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보였다(자기보고: $r=-.14$, $p<.05$, 또래보고: $r=-.14$, $p<.05$). 즉, 남녀학생 모두 친구가 많을 때 또래공격성을 덜 나타내었다(<표 3> 참고).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공격성의 차이를

<표 3> 성별 친구수와 또래공격성간의 상관관계

	친구수	
	남학생(N=210)	여학생(N=216)
<u>또래공격성</u>		
자기보고	-.14*	-.14*
또래보고	-.19**	-.14*

* $p < .05$ ** $p < .01$

2)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친구수는 남학생의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해 보고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 모두와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냈으며(자기보고: $r=-.14$, $p<.05$, 또래보고: $r=-.26$, $p<.01$),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자기보고: $r=-.20$, $p<.01$, 또래보고: $r=-.26$, $p<.01$). 즉, 남녀학생 모두 친구가 많을 때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였다(<표 4> 참고).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

〈표 4〉 성별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

	친구수	
	남학생(N=210)	여학생(N=216)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14*	-.20**
또래보고	-.26**	-.26**

* $p < .05$ ** $p < .01$

〈표 6〉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

	또래공격성	
	남학생(N=210)	여학생(N=216)
또래에 의한 괴롭힘		
자기보고	.43**	.38**
또래보고	.35**	.37**

** $p < .01$

〈표 5〉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	M	SD	M	SD	t
<u>남학생</u>	<u>有(N=33)</u>		<u>無(N=93)</u>		
자기보고	1.85	.66	1.83	.43	n.s.
또래보고	21.8	21.0	50.4	82.8	3.07**
<u>여학생</u>	<u>有(N=64)</u>		<u>無(N=77)</u>		
자기보고	1.47	.43	1.51	.43	n.s.
또래보고	13.7	47.7	15.6	44.2	n.s.

** $p < .01$

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또래에 의한 괴롭힘(또래보고)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또래에 의해 보고되었다($t=3.07, p < .01$). 그러나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표 5〉 참고).

3.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자기보고, 또래보고 모두에서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남학생: 자기보고 $r = .43, p < .01$,

또래보고 $r = .35, p < .01$; 여학생: 자기보고 $r = .38, p < .01$, 또래보고 $r = .37, p < .01$). 즉, 남녀학생 모두 또래에 대해 공격적일수록 또래에게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였다(〈표 6〉 참고).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청소년 초기의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정관계와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나타내는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에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았다.

먼저,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 친구수는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공격성과 유의한 부적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친구의 수가 많을 때, 남녀학생 모두 스스로 또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한다고 보고하

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반 급우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가 많은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또래에 대해 덜 공격적이며, 협동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는 결과(Putallaz & Gottman, 1979; Prettit et al., 1988; Cassidy & Asher, 1992)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공격적인 청소년들이 비공격적인 청소년보다 인기도는 낮아도 이 두 집단의 상호적인 친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Bukowski & Hoza, 1989; 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pey, 1988; Furman & Robbins, 1985; Parker & Asher, 1987)와는 차이를 보인다.

다음으로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공격성은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친구수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던 또래공격성이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정관계 중 친구수는 가장 친한 친구 유무보다 또래공격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단 한명의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것 보다는 여러명의 친구를 가지는 경우, 또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우정관계에서 친구의 특성이나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선행연구 결과, 공격적인 청소년은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대상을 친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된 점(Cairns et al., 1988)에 근거할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거나 없는 문제보다는 어떠한 특성(예: 공격적 특성)의 친구를 가졌는가의 문제가 또래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우정관계에 있어서 친구수나 가장 친한 친구 유무 뿐만이 아니라 우정관계의 질 및 친구의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정관계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녀학생 모두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는 자기보고, 또래보고 모두에서 나타났다. 즉, 친구의 수가 많은 경우, 자

신은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덜 당한다고 보고하였으며, 같은 반 급우들에 의해서도 역시 또래에 의해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가 없는 아동은 친구가 있는 아동보다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예: Bukowski et al., 1995; Malone & Perry, 1995)이나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친구수와 자기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유의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예: Ladd et al., 1997)와 일치한다. 또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과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의 수가 중재역할을 한다는 결과(Hodges et al., 1997)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가장 친한 친구 유무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또래보고에 의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것으로 또래에 의해 보고된 반면, 여학생은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라 자기보고 및 또래보고에 의해 평가된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결국, 친구는 발달 및 적응의 각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rndt & Keefe, 1995)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단 한 명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는 여러명의 친구를 폭넓게 갖는 것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녀학생 모두 친구수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는 유의한 반면,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남학생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초기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있어서 친구수의 영향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은 여아의 경우가 더 컸다는 연구 결과들(예: Berndt & Keefe, 1995; Wentzel & Coldwell, 1997)과는 상치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자세히 고찰해 보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있어서 친구의 영향이 더 컸음을 보고한 연구들(예: Billy & Udry, 1985; Davies & Kandel, 1981)은 가장 친한 친구의 특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것이었으며, 성

차가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들(예: Chassin, Presson, Sherman, Montello, & McGrew, 1986; Graham, Marks, & Hansen, 1991; Keefe, 1994)에서는 한 명의 상호적인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 여러 명의 비상호적인 친구들의 특성을 고려한 경우였다. 따라서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이러한 성차에 있어서의 결과상의 차이는 본 연구와 기존 연구에서의 "친구" 개념의 의미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Sullivan(1953)이 언급한 청소년기 우정관계의 지지적인 효과는 우정관계가 밀접하고, 친밀하며, 상호적일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명한 친구가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지지적인 친구였는지와 같은 친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가 없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아동은 대개 공격적인 또래보다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다른 아동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Hodges et al., 1997)는 결과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의 우정관계의 성차를 바탕으로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여학생은 남학생과는 달리 특히 배타적이고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유사한 소수의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유사성에 따른 친구 선택의 결과이든 친구간의 사회화의 결과이든 가장 친한 친구가 유사한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Berndt, 1981; Douvan & Adelson, 1966). 그러나 남학생의 경우, 유사성을 바탕으로 우정관계를 형성하더라도 보다 넓은 집단에서 여러 명의 또래와의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선호하고(Tietgen, 1982), 친구나 친구가 아닌 사람 모두를 비슷하게 대하며 상호작용을 하므로 높은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학습할 수 있고, 갈등과 문제 해결 능력의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Berndt, 1981; Feshbach & Sones, 1971). 결국,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은 여학생은 가장 친한 친구를 가졌더라도 그 친구가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친구 역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상의 성차를 살펴볼 때 앞으로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공격 성향이 높거나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청소년의 친구의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지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래공격성과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던 도현심, 최미경(1998)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Egan과 Perry(1998)가 피해 아동의 반응으로 제시했던 외현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피해 아동들도 공격적인 특성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 아동이 공격을 경험할 때 비효과적인 공격이나 파괴적 행동 등을 통해 가해아동에게 맞섬으로써 이로 인해 또 다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둘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 또래 경험 연구(예: Olweus, 1991; Perry et al., 1988)에서의 각 보고 방식에 따른 결과상의 차이와 그 유용성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견해가 제시된 점을 염두에 두고 또래 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자기보고와 또래보고 방식 모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보고 방식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친구수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가 모두 유의하였고, 가장 친한 친구 유무에 따른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차이가 남학생의 또래에 의한 괴롭힘에서 자기보고와 또래보고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 다른 경우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보고 방식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본 연구의 변인인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모두 개인의 인성이나 정서 상태가 아닌 또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아동의 정서에 대한 부모와 아동의 보고 방식간의 비교와 같은 맥락의 차이가 없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또래경험을 그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적 유형이 보다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언어적 유형이 보다 많이 나타난다(Bjorkqvist, 1994). 특히 최근 Crick과 Grotpeter(1995)가 제시한 '관계적 공격(relational aggression)'이라는 개념은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동맹관계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서 외적인 신체적, 언어적 공격이 남학생의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의 전략으로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관계적 공격은 여학생에게서 보다 빈번히 나타나는 유형이다(Crick & Grotpeter, 1995).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또래에 의한 괴롭힘 경험을 명백한 괴롭힘(overt victimization), 관계적 괴롭힘, 친사회적 행동을 받지 못하는 것 등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명백한 괴롭힘과 친사회적 행동을 받는 것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나타났으나 관계적 괴롭힘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명백한 괴롭힘 및 관계적 괴롭힘과 또래관계에 따른 사회적 불안, 회피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보고된 바 있다(최보가, 임지영, 1999). 이와 더불어 관계적 공격과 명백한 외적인 공격을 행하는 아동의 우정관계 및 사회적 지위에서 명확한 성차가 보고되고 있다. 그리하여 선행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을 행하는 아동의 우정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친밀감, 배타성, 질투와 우정관계 내의 관계적 공격성으로 특징지어지나 외적으로 공격적인 아동의 우정관계는 친밀감은 낮으나 자신들의 우정관계의 외부세계에 대해 함께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Grotpeter & Crick, 1996).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관계적 공격성(괴롭힘)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는 피해 아동의 특성에 따라 공격적인 피해아(aggressive

victims, provocative victims)와 비공격적 피해아(nonaggressive victims)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하는 피해자가 각기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는 Malone과 Perry(1995)가 보고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비공격적인 피해자는 정상아만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친구들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내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 역시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피해자였다. 반면에 공격적 피해자는 친구가 거의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연령이 높고, 강한 또래에 의해서는 괴롭힘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보다 약한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는 공격적 피해자는 사회적 수용도가 매우 낮으며, 심지어는 신경증이나 정신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Austin & Joseph, 1996; Mynard & Joseph, 1997). 그들은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의 온정성도 낮고, 비밀관적인 훈육과 감독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Bowers, Smith, & Binney, 1992). 결국, 이들은 단순히 또래에 의한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 이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또래에 의한 괴롭힘 피해자의 유형 분류를 바탕으로 이들의 우정관계 및 친구의 특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을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의 한 측면으로 보고, 이를 또래관계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의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같은 또래경험에서 우정관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도현심, 최미경(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양원경, 도현심(1998). 또래수용성 및 또래괴롭힘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223-237.
- 이 숙, 이춘아(1998). 청소년의 공격성과 공격희생

- 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67-77.
- 조선일보 1999년 1월 5일자: 25면.
- 최보가, 임지영(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Austin, S., & Joseph, S. (1996). Assessment of bully/victim problems on 8 to 11 year 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6, 447-456.
- Berndt, T. J. (1981).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 Berndt, T. J. (1992).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New York: Wiley.
- Billy, J. O. G., & Udry, J. R. (1985). The influence of male and female best friends on adolescent sexual behavior. *Adolescence*, 21, 21-32.
- Bjorkqvist, K. (1994). Sex differences in physical, verbal, and indirect aggressio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Sex Roles*, 30, 117-127.
-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ctation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35-145.
- Boulton, M. J.,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73-87.
- Bowers, L., Smith, P. K., & Binney, V. (1994). Perceived family relationships of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215-232.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15-45).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Sippola, L. K., & Boivin, M. (1995, March). Friendship protects "at risk" children from victimization by peers. In J. M. Price (Chair),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ren's developmental risk and resilience: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Symposium conduc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15-823.
- Cassidy, J., & Asher, S. R. (1992). Loneliness and peer relation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50-365.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avies, M., & Kandel, D. B. (1981).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s' educational plans: Some further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 363-387.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 Wiley.
- Egan, S. K., & Perry, D. G. (1998).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99-309.
- Feshbach, N., & Sones, G. (1971).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reactions toward newcomer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81-386.
- Furman, W., & Robbins, P. (1985). What's the point? Issues in the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H.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
- Graham, S. G., Marks, G., & Hansen, W. B. (1991). Social influence processes affecting adolescent substance u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291-298.

- Hartup, W. W., & Sancilio, M. F. (1986). Children's friendships. In E. Schopler & G. B. Mesibov (Eds.), *Social behavior in autism*(pp. 61-80). New York: Plenum press.
- Hodges, E. V. E.,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032-1039.
- Hoover, J. H.,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Keefe, K. (1994). Perceptions of normative social pressure and attitudes toward alcohol use: Change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46-54.
- Kimmel, D. C. & Weiner, I. B. (1985). *Adolescence: A developmental transition*. Hillsdale, N. J. : Erlbaum.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 1181-1197.
- Lewis, M., & Feiring, C. (1989). Early predictors of childhood friendship. In T. J. Berndt & C.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pp. 246-273). New York: Wiley.
- Malone, M. J., & Perry, D. G. (1995, March). *Features of aggressive and victimized children's friendships and affiliative preferences*.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Mynard, H., & Joseph, S. (1997). Bully/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in 8 to 13 year-old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51-54.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Hemisphere (Wiley).
- Olweus, D. (1991). Bully/victim problems among school children: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411-45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Olweus, D. (1992). *Bullying at school-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Book manuscript.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rry, D. G., Kusel, S. J., & Perry, L.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Pettit, G. S., Dodge, K. A.,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rewitt, P. W. (1988). 'Dealing with Ijime(Bullying) among Japanese student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9: 189-95.
- Rizzo, T. A. (1989). *Friendship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school*. Norwood, NJ: Ablex.
- Rys, G. S., & Bear, G. G. (1997). Relational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 Gender and Developmental Issues. *Merrill-Palmer Quarterly*, 43(1), 87-106.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ietgen, A. (1982). The social networks of preadolescent children in Swed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 Development*, 5, 111-130.
- Wentzel, K. R., & Coldwell, K. (1997). Friendships, peer acceptance, and group membership: Relations to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Child Development*, 68(6), 1198-1209.

- Wiggins, J. S., & Winder, C. L. (1961). The Peer Nomination Inventory: An empirically derived sociometric measure of adjustment in preadolescent boys. *Psychological Reports*, 9, 643-677.
- Wu, F. (1992). *Social competency of only-children in*

China: Associations among maternal attachment, teacher attachment, and peer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